

30.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신앙고백

찬 송 :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아모스 5장 18~27절

말씀묵상

남유다에서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해 사회는 온갖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아모스는 죄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1. 여호와와 함께 할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18-20).

‘여호와와 함께 할 자’는 아모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상과 악의 세력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앞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4:12)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와 함께 할 자를 축복과 기쁨과 구원이 주어지는 풍요로운 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영적불감증에 걸린 그들은 비운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와 함께 할 자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날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2. 살아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21-23).

하나님은 모든 절기 행사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 받지 않으시며 각종 제사와 노랫소리까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값비싼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 혹은 아름다운 수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청종입니다(삼상 15:22).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3.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채워야 합니다(24-27).

아모스는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까지 겸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넉넉히 흘러갈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맺는말.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습니다. 반면 예배가 살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져서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으로 널리 흘러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적용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은 국내기관(지구촌구호개발연대)을 후원합니다.

2. 예배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각 예배 10분전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주일에배 -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수요일에배 - 오후 7시 30분 (온라인예배)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온라인예배)

3.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습니다.

4. 교육부 여름행사 일정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7월 4-25일(매주 주일, 총4회)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 7월 11-25일(매주 주일, 총3회)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 8월 1,7-8일(2주간 주일·토요일, 총3회)

청년부 여름수련회 : 8월 6-7일(무박 2일)

5.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둔전교회를 섬기는 이들

창립 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지 휘 자 : 이영준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25장 다같이

2·3부

예배의부름 인 도 자
※임 재 찬 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 . . 다 같 이

※ 교 독 문	36. 시편 90편	다	같	이
참 회 기 도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60장	다	같	이
기 도		1부: 정재하 집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5장 1-5절(신약173) 인 도 자

찬 양 주님의 세계 영 상

말씀 예수님의 자기소개(7) 임창세 목사
나는 포도나무요

7. ~~월~~ 봉사위원

		7월 25일	8월 1일	8월 8일	8월 15일
예배 기도	1부	정재하	안순조	최광순	박영애
	2부	비대면 영상예배			최진수
	3부				홍진영
	수요				정귀자
한금위원 안내위원		※ 비대면 예배 연장 시 기도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 단 찬 양		내 평생 사는 동안		다	같	이
헌 금 기 도				인	도	자
교 회 소 식				인	도	자
※ 송 영		하나님의 그늘 아래		다	같	이
※ 축 도				임	창	세 목사

수요예배	금요심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저녁 7시 30분	저녁 9시	오전 5시 30분

말씀 : 천광우 목사 말씀 : 임창세 목사

【요한복음 15장 1-5절】

1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우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3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
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나는 포도나
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
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예 배 안 내 ◁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 당
	2부	오전 11:00	본 당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예배		오후 7: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본 당

<2021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선(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용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규),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보산교회 선교 : 은혜를 누리집(김광수)

목장	목자	모인곳	인원	현금	전도	목장	목자	모인곳	인원	현금	전도
1	곽상화					13	김영주				
2	강호성					14	박은경				
3	최광순					15	안순조				
4	임완민					16	김종순				
5	윤종찬					17	장신자				
6	박심원					18	주경숙				
7	이용준					19	최운교				
8	신연호					20	전옥자				
9	최진수					21	이머숙				
10	김효영					22	유인숙				
11	이 희					23	이경순				
12	양응모					24	정순진				
						25	주리애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강운지 강인식 박상민·김영옥 백세완·김금란 석장환 신세벽 안혜자 윤종찬
정재현 최광순 최영란 최영애·조남진 최인선 한규봉 한춘자·홍춘근

◆ 감사헌금

강인식 박상민·김영옥 박재락 윤종찬 이말자 이순자 최영애·조남진

◆ 선교헌금

곽삼화 임완민 주영순 최진수

◆ 건축헌금

주일헌금	심일조	감사헌금	기관헌금	목장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57,000	3,109,000	190,000				110,000

* 온라인현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2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현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